

“칠흑같은 수중 더듬더듬... 뒤엉킨 시신 찾을 때마다 참담”

구조대원들이 말하는 참혹한 현장

선실 입구마다 희생자 몰려 처절했던 침몰 상황 짐작 200명 잠수사 수심 20~30m 작업...“생명 바칠 각오”

100명이 넘는 탑승객을 가둔 채 바다에 침몰한 세월호 선실 내부가 수색·구조 작업에 나선 구조대원들에 의해 생생히 드러나고 있다.

해군 박주홍 상사는 지난 22일 밤 “칠흑같은 어둠이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고작 30cm도 볼 수 없는 암흑 속에서 손가락 마디마디에 온 신경을 집중해 작업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박 상사는 경력 17년의 베테랑 잠수사이기도 불구하고 선체 모습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시계가 제로인 상태인 탓에 수중 전등에 의지한 채 손을 더듬어 느낌으로 희생자를 찾아내고 있는 형편이다.

22일에는 4층 배 뒷부분에서 여학생 희생자들을 집중적으로 찾아냈다. 유리창을 하나씩 깨뜨리고 손가락 촉각에 의지해 한 명씩 조심스럽게 빼냈다. 유리창을 한 꺼번에 모두 깰 때 밧줄질치 모를 시신 유실을 막기 위해서다.

여기에 승객이 가장 많이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식당칸 진입에 성공, 3·4층 선실 전체에 대한 진입로를 확보하면서 희생자 수색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게 구조대원들 설명이다.

현재 해군·해경·민간 소속 잠수사 200여 명이 세월호와 바지선을 연결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라 수심 20~30m 아래로 내려가 희생자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처절한 선실 내부 상황도 엿보인다. 구조대원들은 배 안에 갇힌 채 숨진 시신을 건져 올리면서 처절했던 당시 침몰 모습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다. 시신 상태를 예상하고 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 수습이 반복될수록 몸은 물론이고 마음이 답답해 가슴이 짓눌리는 기분을 떨치지 못한다고 한다.

해군 잠수사들은 “선실 입구마다 몰려 있는 희생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선체가 기울면서 침몰하는 상황에도,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만을 듣고 남아있던 승객들이 선실로 바닷물이 차 오르는 순간, 출입구 쪽으로 몰렸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박주홍 상사는 “잠수 구조활동 매뉴얼’도 무시하고 생명을 바칠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군 측은 이날까지 정해진 한에서만 6명의 잠수사가 두통과 감각기관 마비, 복통 등을 호소하며 함내에 설치된 압박챔버 안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마음은 급한데...” ‘세월호’ 구조작업에 투입된 해군 SSU대원이 22일 오후 진도군 앞 바다에 정박중인 청해진함 내에 설치된 저감장치에서 잠수병을 치료받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곱슬, 마른 체형... 인상착의 적은 종이 갈수록 배곡

늘어나는 무연고 시신들

23일 오후 5시, 진도실내체육관 입구 ‘미확인 시신’ 게시판에는 A4 용지 15개가 붙어 있었다. 이 용지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었다. 용지마다 37번, 137번, 138번 등과 같이 번호가 붙어 있고, 번호 아래에는 ‘175cm, 넓은 이마, 약간 곱슬에 짧은 머리, 얇은 눈썹’과 같은 미확인 시신의 인상 착의가 적혀 있었다. 37번은 37번째로 나온 시신을 의미한다.

이들 15구의 시신은 게시물에 자제하게 인상 착의가 적혀 있지만 지난 20일 바다에서 옮겨진 뒤 여태껏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사고 8일째로 접어들며, 수습 작업이

사고 이후 수습기간 길어져 얼굴 못 알아봐

DNA 검사 후 가족 인계...냉동고도 부족

분격화되면서 미확인 시신을 더 늘 것으로 보인다. 바다에서 옮겨진 이후 신원 확인이 곧바로 이뤄져 가족들에 의해 고향으로 돌아가던 사고 초기와 달리 최근에는 가족을 못 찾아 외롭게 남아있는 주검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고 이후 수습기간이 길어지는 점도 한 원인이다. 이 때문에 22일 이후 가족을 찾아 인상착의가 적힌 게시물이 떨어지는 속도는 부족 느려진 반면, 새로운 미확인 시신 정보를 담은 A4용지는 훨씬 많아지고 있다. 이날 정오만 해도 한 배 미확인 시신이 31구까지 늘기도 했다. 범정부대책본부도

22일부터 시신을 안치하기 위한 공간 마련에 나선 상태다. 신원 확인이 돼 떼어졌다가 다시 붙은 경우도 있다. 23일 오전 10시께 129번의 경우 옷차림, 신분카드에 적힌 이름이 일치한다며 가족들이 확인해 떼어졌다가 이틀만 같은 것으로 밝혀져 오후 3시 다시 시신 정보가 나붙었다. 새로운 시신 정보가 뜰 때마다 가족들의 얼굴은 창백해진다. 부랴부랴 게시판을 담은 A4용지는 훨씬 많아지고 있다. 이날 정오만 해도 한 배 미확인 시신이 31구까지 늘기도 했다. 범정부대책본부도

까 갈래’ 하며 불안함을 안고 신원 확인으로 달려가는 가족들도 많다. 신원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희생자들은 목포 병원에 분산, 안치중이지만 가족이 쉽게 알아 볼만한 정보가 부족해 찾아오는 이도 드물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뒤늦게 찾아와 통곡하는 가족들도 많다. 목포 A병원 관계자는 “냉동 보관고에 시신을 보관하는데 부족해 두 구의 시신을 한꺼번에 안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신원 확인이 안 된 남성 시신은 장기 보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경의 허술한 신상 정보 안내와 모호한 인상 착의 안내에 대한 불만도 여전하다. 유족들은 “해경의 정보가 다 틀렸다. 절대 믿어서는 안 되고 모두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에어포켓’은 없었다

해경 3·4층 집중 수색...“확인 못해”

침몰 8일째를 맞은 세월호 선내에서 아직까지 에어포켓(공기잔존 공간)이 발견되지 않았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고명석 대변인은 23일 진도군청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3층과 4층의 다인실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지만 에어포켓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침몰된 지 8일을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에어포켓 미확인 사실은 사실상 없는 것이냐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고 대변인은 “합동구조팀이 선체 3층과 4층을 동시 수색했다”며 탑승객이 몰린 것으로

로 예상하는 부분의 선체를 뜯어냈지만 생존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배 선체가 뒤집히면서 집기가 섞여 엉망이고 특히 선실 입구가 막혀 있었다”며 “특수 제작한 망치로 객실을 부수면서 다른 객실로 옮겨가며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가 침몰하기 전에 (해경이) 적극적으로 구조에 나서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이 들어가면서 가라앉고 있는 배는 근처의 모든 것은 물론 근처의 사람도 빨려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1226-증-52297호

노안시력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밝은광주안과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정기에탁금 특별판매

1년 3.2%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꿈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구 양동시장 북개사가 새마을금고)
(구 광주유통 새마을금고)

대표 본 점:361-3515 양 동 지 점:362-6164
각화지점:268-6163 풍암금호지점:651-6167

광주 광역시 서구 천변차로 246번길 3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인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글리코엔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식후 혈당상승 억제!!

-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주)유인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m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 1899-3975 H.P 010-3598-7080